

2027 유아임용 1차 대비 · 오리엔테이션

6회 완성, 문제독해 & 서답완성반

이론은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을 위한 **실전 훈련 강의**

읽는 순서를 학습한다

쓰는 구조를 고정한다

6회 반복으로 루틴 이식

2026 진단 ·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2026, 역대 최저 커트라인

원인은 실력이 아니라 '출력'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71.5점

역대 최저
커트라인

서술형·사고형 문항의
대폭 증가



단순 암기로는 안 풀린다

개념을 아무리 외워도,
'문제가 요구하는 형태'로 바꿔 쓰지 못하면 **0점** 처리됩니다.



속도와 구조가 당락을 가른다

제시문 구조가 복잡해져 읽는 데 시간이 밀리고,
답안 문장 구조가 흔들리면 키워드가 빠집니다.

수험생이 막히는 두 지점

문제 1



문제를 읽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제시문과 소문항이 분리돼 있는데,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소문항을 보는 습관 때문.

[A][B][C] 구간 + ㉠㉡ + 1)2)3) 구조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문제 2



쓰고도 맞는지 모른다

머릿속 개념은 있는데,
채점 기준에 맞는 문장 구조로 ‘출력’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음.

‘이론 언어’를 ‘답안 언어’로 바꾸는 회로가 없는 것.

이 강의의 답

두 가지 훈련 회로를 만든다



회로 1

문제 파악 훈련

발문 먼저 읽기 → 제시문으로 돌아가기
읽는 '순서'를 학습하여 시간을 줄인다.

→ 읽기 속도 문제 해결



회로 2

답안 출력 훈련

채점관이 보는 것을 알게 한다.
유형별 '답안 구조'를 고정해 출력한다.

→ 쓰고도 모르는 문제 해결

발문 먼저, 제시문은 ‘필요한 곳만’



소문항을 먼저 읽는다

1) 2) 3)을 먼저 보고 ‘무엇을 찾을지’를 손에 쥘다



조건어에 동그라미

근거 · 찾아 · 2가지 · 고쳐 쓰시오 ...



제시문에서 해당 구간만 밑줄

찾을 것이 있는 곳만 핀셋처럼 집는다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버린다

강의 첫 15분, 매번 강사가 실황으로 시연하고 → 수험생이 직접 따라 합니다.

같은 문제, 절반의 시간으로

① 소문항 먼저 → ② 조건어 표시

㉠·㉡ 발문 장점을 **캘러거·애슈너에 근거하여** **각각 1가지씩** **순서대로** 쓰시오.

동그라미 친 조건어

- 근거 = 그 이론 용어로 답하라는 신호
- 각각 1가지 = 빠짐없이 두 개
- 순서대로 = ㉠ 먼저, ㉡ 다음 (바꾸면 감점)

③ 제시문은 두 줄만 본다

㉠ “어떤 놀이를 해 보고 싶어요?”

㉡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④ 나머지 대화는 읽지 않는다.

제시문 9줄 중 실제로 읽을 곳은 2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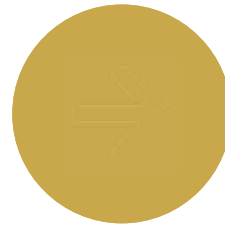
→ 읽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론 언어’를 ‘답안 언어’로

아는 것과 점수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채점 기준에 맞는 문장 구조로 변환하는 회로를 만듭니다.

이론 언어

“확산적 질문은 사고를
넓혀 주는 거지...”



답안 언어

“㉠은 확산적 질문으로, 유아가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핵심: 2026 유형은 답안 구조가 ‘문항 유형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3가지를 정해 반복 훈련합니다.



유형 A 오류 찾기형

2026에서 가장 많이 출제

잘못된 것

○○○이다

바르게 고치면

○○○이어야 한다

이유

왜냐하면 누리과정/이론에서 ~이기 때문이다

강의 중 명시: 이 구조에서 ‘이 키워드’가 빠지면 감점 — 채점관이 무엇을 보는지 매 문항 확인합니다.



유형 B 개념+사례 연결형

개념과 제시문을 잇는다

개념 진술

(개념명)은/는 ~하는 것이다

사례 연결

제시문에서 (누구)가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강의 중 명시: 이 구조에서 ‘이 키워드’가 빠지면 감점 — 채점관이 무엇을 보는지 매 문항 확인합니다.



유형 C 교사 발화 작성형

2026 신유형 · 감정 반영 + 확장 발문

감정 반영

(유아 이름)이가 ~해서 ~한 느낌이구나.

확장 발문

그렇다면 ~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의 중 명시: 이 구조에서 ‘이 키워드’가 빠지면 감점 — 채점관이 무엇을 보는지 매 문항 확인합니다.

강의 운영 방식 · 매번 같은 틀

강의 구조 자체가 훈련 틀

10

분

도입

오늘 출제 유형 3가지 선언

“오류 찾기 2 · 발화 1 · 개념 연결 1”

15

분

읽기 훈련

강사 실황 시범

조건어 표시 → 제시문 구간 연결

20

분

답안 작성

직접 쓰고 → 모범 구조 확인

“이 키워드 없으면 감점” 명시

5

분

오답 정리

자주 틀리는 표현 3개

영역별 출력 오류 교정

전체 일정 · 6회 + 개인 PT 2회

6회로 전 영역, PT로 개인 교정

1회차
1 유아교육개론

2회차
2 신체운동·건강

3회차
3 의사소통

4회차
4 사회관계

5회차
5 예술경험

6회차
6 자연탐구


개인 PT
2회

PT 1차 · 1회 직후 쓴 답안을 채점 기준으로 직접 교정.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반복.

PT 2차 · 6회 직후 새 문항을 시간 재서 풀게 해 읽기 루틴 정착 확인. 발화 작성형 집중 교정.

이 강의의 한 줄

강의의 역할은 개념 전달이 아니라 **루틴 이식**입니다.

읽는 순서와 쓰는 구조를 6회 동안 반복해서 몸에 박는 것 — 그것이 이 강의의 전부입니다.

이론은 알고 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수험생,
그 간극을 채워 드립니다.

해커스임용 · 이지선 유아임용